

# ‘윤선도는 시·그림·음악 조예 깊은 종합 예술인’

완도 윤선도문학관 개관 기념  
28·29일 보길도에서  
‘고산의 문예미학...’ 학술대회  
박석무·고미숙 등 강연

고산(孤山) 윤선도(1587~1671)는 조선 중기 정치와 사상, 문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학자이자 문인이다. 한마디로 그는 시와 그림,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종합 예술인이었다.

보길도는 윤선도에게 유배의 쓸쓸함을 달래주는 이상적 공간이었다. 세연정은 적자봉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 조성된 작은 연못으로 물과 바위, 송죽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윤선도는 이곳에서 시문을 짓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이상을 구현했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어부사시사’는 고산의 천재성이 빛나는 걸작이다.

지난 1월에 개관한 고산 윤선도문학관(이하 문학관)은 고산의 삶과 예술을 들여다보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의 공사 끝에 완공된 문학관은 창작실(108㎡) 1동과 문학관(405㎡) 1동으로 구성돼 있다. 창작실은 국내외 문학인들이 보길도에서 장기간 머물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돼 있다.



완도 보길도에 지난 1월 개관한 윤선도 문학관.

문학관 내 전시실 내에는 세미나실과 전시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고산과 보길도의 만남 ▲고산의 흔적을 따라 ▲흥취(興趣)의 미학 어부사시사 ▲고산의 고고한 삶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그래픽을 비롯해 태블릿 PC, 모형, 음향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제 윤선도의 생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개관 이후 공식적인 학술행사는 가장 큰 대회가 오는 28일과 29일 보길도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완도군과 고산학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등이 ‘고산 윤선도의 문예미학과 보길도’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산의 삶과 문학, 예술

을 망라한다. 학술대회 기간에는 대중강연, 청소년 창작교실, 고산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풍성한 문화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첫날 28일 오후(3시~5시)에는 고산윤선도문학관에서 공식적인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대중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가 ‘고산의 보길도 생활과 ‘어부사시사’의 문예미학’을 주제로 고산의 문학과 예술을 조망하며, 박석무 다산연구소 소장은 ‘조선의 의인(義人) 고산 윤선도’에 초점을 맞춰 강연한다.

2일차에는 문학관과 세연정에서 각각 학술대회와 고산예술제가 계획돼 있어 고산과 그를 매개로 한 학문적 연구물과 다

양한 예술을 만날 수 있다.

먼저 29일 오전(9시~오후 12시 20분)에는 윤선도문학관에서 학자들의 다양한 발표와 주제 토론이 있다. ‘고산문예의 산실 부용동 원림의 조경학적 고찰’(서울대 성종상), ‘어부사시사의 공간구조와 작품세계’(순천대 김용춘) 등 다양한 발표가 이어진다.

오후(2시~3시 30분)에 펼쳐지는 고산 예술제는 ‘영역시조 ‘어부사시사’ 낭송’(고려대 서지문), ‘가곡창 ‘어부사시사’(이유경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이수자), ‘가야금 병창 및 대금 연주’ 등이 계획돼 있다.

박석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여름 서점가에 화제를 모은 책 가운데 ‘빛의 집’(디디에 반 코벨라르트 지음)이란 소설이 있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종의 판타지 모험담이다. 25살의 주인공 제레미 랙스는 연속극 촬영 도중 변성기가 찾아와 배우의 길을 접게 된다. 어느 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찾은 그는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을 관람하던 중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된다. 묘령의 여인이 주황빛 창문을 열고 손짓하자 자신도 모르게 그림 속으로 빨려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디디에 반 코벨라르트

를 담은 ‘베아트릭제 천지’를 그렸다. 소설 ‘적과 흑’의 프랑스 작가 스탕달은 1817년 피렌체의 산타 크로체 성당에서 귀도 레니의 ‘베아트릭제 천지’와 맞닥뜨리게 됐다. 무수 영문인지 한동안 그림 앞에서 발을 뭍 수 없었던 그는 성당을 나오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뛰고 다리가 풀리는 이상정후를 경험했다. 약 한달간 알 수 없는 증상에 시달린 그는 일기에 자신이 겪었던 황홀함을 적었고 훗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어디 스탕달뿐인가. 예술성이 뛰어난 미술품을 감상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거나

## 을 가을 ‘스탕달 신드롬’에 빠지자

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접한 순간 주인공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하여 ‘스탕달 신드롬’이다.

예술작품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겪는 신비한 체험을 뜻하는 스탕달 신드롬의 유래는 이렇다. 16세기 이탈리아의 귀족가문 프란체스코 천지에게는 베아트릭제란 딸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미모를 지녔던 베아트릭제는 점점 자라면서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방탕 귀족의 전형이었던 베아트릭제의 아버지는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집안에 가둬두었다. 그리고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처녀로 자란 14살의 베아트릭제를 겁탈하는 패륜을 저질렀다. 그날 이후 복수할 날만 기다렸던 그녀는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후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집행이 있던 날, 그녀의 마지막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이탈리아 각지에서 구경꾼들이 피렌체로 모여들었다. 이들 중 한 사람이었던 화가 귀도 레니(1573~1642)는 그녀가 단두대에 오르기 직전의 모

적절한 흥분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훌륭한 조각상을 보고 모방충동에 사로잡혀 조각상과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 앞에서 불안과 평화를 동시에 느낀다. 심지어 문학작품이나 유명한 사람의 전기(傳記)를 읽고 난 후에도 이러한 증세를 겪는 사람이 있다.

‘베아트릭제 천지’처럼 시대를 뛰어넘는 걸작에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다. 그것은 아마 보잘따다 스며있는 화가의 열정과 체온, 고뇌와 영혼이 한데 어우러지는 데서 오는 감동일 것이다. 좋은 예술품을 감상한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다. 어른들에게는 무더진 감성을 일깨우고, 아이들에게는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하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근래 광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들이 풍성하다. 굳이 ‘스탕달 신드롬’까진 아니더라도, 잠시나마 황홀한 체험에 빠져보는 것도 관심을 두었다.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 가을이지 않은가.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시립미술관 ‘박상화와 함께하는 소통의 영상 공간’

광주시립미술관이 ‘박상화 작가와 함께하는 소통과 사유의 영상 공간’ 행사를 26일 오후 2시 본관 로비와 제1전시실에서 연다.

박상화 작가는 현재 열고 있는 2016광주비엔날레기념 ‘한국·대만현대미술전’ 참여해 무등산 사계를 영상작품에 담은 ‘무등판타지아’를 출품했다. ‘무등판타지아’는 실크 스크린 사이를 거닐며 소통하고 사유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는 박 작가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고 관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립발레단·중 광저우발레단 ‘한·중 공연 예술제’

28·29일 광주문화회관

광주시립발레단과 중국 광저우발레단이 함께하는 ‘한·중 공연 예술제’가 28일(오후 7시30분)과 29일(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광저우 자매도시 2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다.

지난 1994년 창단한 광저우발레단은 중국 3대 발레단으로 꼽히며 동양적 색채와 서양 클래식 발레의 접목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팀이다.

광주 공연 작품은 다양한 소재의 모던발레다. 중국 고전의 양산백과 축영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그린 ‘The butterfly lovers’, 수천년을 흐르는 황하를 소래로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의 불변성을 발레로 표현한 ‘yellow river’, 아름다운 의상과 웅대한 장면이 인상적인 조지발란신의 ‘Serenade’가 레퍼토리다. 광주시립발레단은 모던발레 ‘불안한 축’을 무대에 올린다. 한국 현대 무용을 대표하는 ‘젊은 피’ 김관선 안무가의 작품으로 지난해 10월 공연된 적이 있다.



중국 광저우발레단 공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춤이며 사랑하는 것, 모든 추상적인 것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춤이 될 수 있다는 주제로 라이브 기타 사운드와 어우러진 작품이다. 티켓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 전석 50%할인)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제1회 아름다운 영월! 전국 드론영상사진 공모전’ 강원일보사, 창간 71주년 맞아

강원일보사가 창간 71주년을 맞아 ‘제1회 아름다운 영월! 전국 드론영상사진 공모전’을 연다. 공모전 주제는 ‘영월군 자연·관광자원’으로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영상과 사진으로 나눠 진행하며 통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영상·사진 각 1명) 수상자에게는 강원도지사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4명에게는 상장·상금 70만원, 장려상 6명에게는 상장·상금 20만원을 제공한다.

작품 접수는 11월 25일까지로 입상자는 12월5일자 강원일보와 홈페이지(www.kwnews.co.kr)를 통해 발표한다.

응모는 강원일보 웹하드(www.webhard.co.kr·ID : kwnews 비번 : 5678)에 업로드하면 된다. 문의 033-258-171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향동점과 함께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